

共產主義와 文化革命

陳 埠 津

I. 머리말

IV. 새로운 文化革命의 衝擊

II. 文化와 文化革命

V. 맺음말 : 問題와 評價

III. 새로운 社會主義建設

I. 머 리 말

‘文化革命’(Cultural Revolution)은 마르크스主義者 또는 共產主義者들이 社會主義革命을 進行시킴에 있어 반드시 推進해야 할 가장 重要한 事業이다. 그것의 過去의 思想, 生活方式 및 交流方法 등을 철저하게 變革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事物의 變化에 새로이 對應하는 方法의 창출까지도 포함한다. 그러나 지난 半世紀 以來 社會主義國家라 불릴 수 있는 많은 國家들, 예를 들면, 蘇聯, 南슬라브國家群, 헝가리 및 中共과 같은 重要한 社會主義國家들은 대부분 이러한 文化革命事業을 제대로 推進하지 못하였다. 그 중에서도 中共의 경우는 더욱 두드러지는 例라고 할 수 있다.

中共은 1949年에서 1976年에 이르는 근 30年의 기간동안, ‘三面紅旗’運動 등과 같은 社會主義 改造運動을 推進하였으며, 1956年에는 “基本的인 社會主義改造를 完遂하라”라는 구호를 선포하였다. 1956年의 農業合作化運動중에 제시된 이 구호는 合作化를 촉진시키는 동시에 富農의 經濟的地位를 自力更生에 의존하는 勞動者의 지위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中共은 資本家階級에 대하여도 일련의 조치를 취했던 바, 1956년에는 모든 事業에 대하여 公私合營의 方式을 적용시키기 시작함과 아울러,

資本主義 個人所有制를 社會主義 全民所有制로 改造시켰다. 中共은 이러한 社會主義 改造運動을 통하여 진정한 社會主義時代로 접어들기 시작하였다.¹⁾ 그러나 모든 노력들은 1966年과 1976年에 걸쳐 전개되었던 ‘文化大革命’의 10年 動亂에 의하여 큰 시련에 부딪혔다. 그 이후, 中共當局은 스스로의 과오를 反省하면서,

“우리 黨은 全面的인 社會主義建設에 있어서 사상적 무장의 결여와 경험부족으로 인하여 잘못된 左傾路線의 지도에 따른 과도한 階級鬭爭을 야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八大’原則을 變質시키는 과오를 범했다. 때문에 우리들의 社會主義 建設努力은 그동안 큰 좌절을 겪어 왔던 것이다”²⁾

라고 시인하였다. 이러한 反省과 함께 中共은 1978年부터 社會主義建設과 文化改革運動을 推進하기 위한 새로운 目標을 設定하여 實行에 옮기고 있다.

10年間の ‘文化大革命’과 근 30年間の 社會主義 改造努力은 中國이 傳統的으로 지니고 있던 많은 것을 변모시키거나 단절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中國의 傳統文化와 道德規範, 家庭과 社會構造 및 生活方式와 生活規範 등은 中共의 ‘共產化’로 유린당하여 그 존재를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中共은 30年間の 社會主義化過程을 통하여 아무것도 이룩하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들에게는 단지 파괴만이 있었으며, 고유한 社會秩序를 와해시킨 후 새로운 生活方式와 社會秩序를 創出해 내는데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우기 全中國人民으로 하여금 그러한 結果를 감수하도록 강요하였다. 그들이 얻은 成果라는 것은 오직, 낙후된 經濟發展, 農村의 貧困, 社會關係의 緊張과 對立, 새로운 封建意識과 迷信, 教條主義의 盛行 등 부정적인 것들 뿐이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뒤의 두 가지는, 方勵之, 李洪林, 嚴家其, 于浩成 등과 같이 近代中國에서의 改革을 주장

1) “怎樣理解剝削階級消滅了但還存在階級鬭爭”, 「人民日報」, 1979年 8月 22日字, 第4版.

2) 中共中央黨校科學社會主義教研室編寫組, “新時期我國社會的主要矛盾”, 「光明日報」, 1984年 1月 9日字, 第3版.

하던 사람들의 改革理念을 탈색시키는 結果를 낳았다.³⁾ 이러한 과거의 오류에 대하여 中共當局은 깊이 反省하는 동시에 1978년부터는 과거의 착오를 개선한다는 의도아래 제 1차적으로 새로운 ‘文化革命’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共產主義는 中國이 지니고 있는 傳統的인 固有要素에 충격을 주었다. 따라서 中共이 現在 推進하고 있는 새로운 ‘文化革命’ 내지 社會主義 建設作業은 中國大陸의 社會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本 考에서는 中共當局이 1978년부터 推進하고 있는 새로운 文化革命이 어떻게 進行되고 있으며 推進過程에서 나타나는 問題點과 영향은 무엇인지를 考察해 보는 한편, 現在 中共이 표방하고 있는 共產主義가 中國大陸의 生活에 어떠한 衝擊을 던져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一般的으로 共產主義의 衝擊은 社會主義國家가 共產化政策을 실시함에 의하여 야기되는 일련의 影響力을 일컫는 것이다. 이러한 認識은 共產化政策의 실시가 傳統文化에 어떠한 影響을 미치며, 그 결과 어떠한 變化가 초래되느냐에 관한 理論을 토대로 하여 성립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理論的 觀點에서 볼 때, 共產化政策의 實施는 거의 대부분 同一한 結果를 낳기 때문이다. 다만, 現實적으로 대다수의 共產主義國家들은 많긴 적긴 간에 특정의 共產化政策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有名無實한 政策을 집행하기도 하는 바, 이러한 政策의 實施는 어떠한 형태로든 社會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本 考는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共產化가 던져주는 衝擊을 고찰하고자 하는 問題意識을 기본으로 作成되

3) 方勵之, 李洪林, 嚴家其 등의 人物에 대한 批評은, 本人의 論文, “大陸民主運動的理論家方勵之” 「中國大陸研究」, 第29卷 第9期(1987年 3月), pp. 24~31, “嚴家其及其政治改革理念” 「中國大陸研究」, 第29卷 第12期(1987年 6月), pp. 42~49, “李洪林及其改革理念” 「中國大陸研究」, 第30卷 第1期(1987年 7月), pp. 28~34을 參照. 于浩成에 대한 批評은 林文, “「第三梯隊」提法質疑—訪于浩成談大陸法制現況與前景”, 「鏡報」月刊, 第7期(1985年 7月), pp. 13~17 參照.

었다.

따라서, 以下에서는 우선 ‘文化革命’에 관한 기존의 정의를 알아본 후, 中共이 어떻게 ‘文化革命’을 전개시켜 왔는가 하는 問題와, 그 결과 中國 社會에서는 어떠한 衝擊이 造成되었는가 하는 問題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文化와 文化革命

‘文化’(Culture)란 무엇인가라는 問題에 대하여는 意見이 分분하기 때문에 하나의 結論的 概念으로 定立되어 있지 않다. 一般的으로 文化는 思想 내지는 意識으로 이해된다.⁴⁾ 그러나, 마르크스主義者들의 見解에 따르면, 文化의 本來意味는 思想이나 意識에 局退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社會實踐’(Social Practice)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것이라고 한다. 즉, 한마디로 요약하면, 文化란 바로 ‘一種의 社會生活方式’인 것이다. 本文에서는 Raymond William과 E.P. Thompson의 定義를 받아들여, 마르크스主義者들의 文化革命에 대한 解釋에 적용시키고자 한다. William의 見解에 의하면, ‘文化’란 一種의 實踐이나 社會의 慣習·風俗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社會實踐과 그러한 實踐속에 內在하는 모든 關係의 總體로서 思想과 社會關係를 包括하는 것이라고 한다.⁵⁾ 한편, Thompson은 特定的 歷史的 條件과 歷史關係의 기초위에서 各種 社會集團과 階級이 하나의 意識이나 價值 내지는 하나의 生活傳統이나 實踐으로 生成되는 것이 文化라

4) 이러한 定義에 관하여는, Clifford Greertz,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Basic Books Inc., 1973), pp. 3~30; Robert D'Amico, *Marx and Philosophy of Culture* (Gainesville: University Press of Florida, 1981), pp. 10~13; Carmen Claudin Urondo, *Lenin and the Cultural Revolution* (New Jersey: Humanities Press, 1977), pp. 18~25 參照.

5) Raymond William, *The Long Revolution* (London: Penguin Press, 1965), p. 63, *Marxism and Litera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pp. 30~31, 82 參照. 또한, Stuart Hall, "Cultural Studies: Two Paradigms," in Tony Bennett ed., *Culture, Ideology and Social Process: A Reader* (London: The Open University Press, 1986), pp. 22~24 參照.

고 주장하였다. 즉, 쉽게 말하면, 文化는 意識과 生活의 歷史的 經驗이라는 것이다.⁶⁾

이러한 概念들은 ‘文化革命’을 쉽게 理解하는데 도움이 된다. ‘文化革命’은 意識과 一切의 社會關係를 포함한 모든 社會生活方式를 철저하게 改造시키기 위하여 推進되는 것이다. 만일 文化改造作業이 社會主義的方式으로 推進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社會構成員들의 意識構造가 社會主義化된다는 것을 뜻하며, 社會主義的 交流關係가 적용된다는 意味가 된다.

共產主義者들에게 있어서 文化革命의 推進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心理적으로나 意識적으로 社會主義化가 推進되지 못한 社會에서, 그 構成員이나 社會보다 먼저 社會主義적으로 改造된 團體나 組織들이 社會主義 社會를 建設할 意識이 있고, 社會主義的 生活의 意味를 알고 있으며, 社會主義적으로 相互交流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心理的 또는 意識的인 改造努力을 통한 社會主義化가 아닌 관계로 그들에 의해 이루어진 社會는 엄밀한 의미에서 社會主義社會가 아닌 同時에 社會主義社會로 改造·建設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社會主義社會와는 相異한 意識과 生活方式 및 相互交流方式을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와 레닌은 이러한 原理를 잘 파악하고 있었다.

레닌은 1923年 「論合作制」라는 著作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들의 적은 우리들에게 하나의 文化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國家에 社會主義를 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끊임없이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은 우리들이 文化革命의 始發點에 관한 理論을 고려함이 없이 文化變革을 꾀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즉, 그들은 文化革命 以前에 政治革命이나 社會變革을 先行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現時點에서 지속적으로 文化革命을 進行시켜야만 한다.”⁷⁾

6) E.P. Thompson, *The Poverty of Theory* (London: The Merlin Press, 1980), pp. 79~88; Stuart Hall, *op. cit.*, pp. 25~26 參照.

7) 레닌, 「論合作制」, 《레닌全集》, 第33卷(北京:人民出版社, 1957年), p. 429.

그에 따르면, 확실히 社會主義的 改造・建設過程에서 文化革命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러한 努力은 아무런 意味가 없다고 한다. 더우기, 社會主義革命이나 社會主義建設을 推進할 경우, 文化革命을 並行시킬 수 없다면, 그 이전에 미리 社會主義의 方向을 확고히 마련해 놓아야 할 뿐만 아니라, 意識과 生活方式를 社會主義的으로 變革시켜 놓아야 만이 비로소 社會主義 推進方向을 堅持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그가 제시한 ‘新經濟政策’時代의 終局에 관한 問題도 언급되어졌던 바, 그는 비록 當時의 國家權力이 勞動者階級の 手中에 있고 모든 生産資源이 國家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점차 物品賣買가 農民에게 양도되어지고 個人賣買의 原則이 양도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合作制’가 施行되고 있다면 社會主義基地는 계속 存立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⁸⁾

마르크스도 同一하게 이러한 問題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마르크스는 「도이치 이데올로기」라는 글속에서 共產主義 成立의 前提를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는 現存狀況을 消滅시키는 現實的인 運動으로서의 共產主義(즉 文化革命)는 生産과 관련된 두가지 前提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것은 ‘生産力의 至大한 增進과 高度의 發展’ 및 ‘共產主義的 意識’이라고 한다.⁹⁾ 또한 그는,

“만약 全面的인 變革을 일으킬 物質的 要素가 具備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한편으로는 一定한 生産力이 없다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도 舊社會가 지닌 特定の 측면에 대한 反抗이 形成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意味한다. 더우기 共產主義 歷史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條件下에서 過去の ‘生産活動’ 自體에 대한 反抗 내지는 舊社會가 지니고 있는 ‘綜合的 活動方式’에 反對하는 革命群衆이 자신들의 思想을 수백, 수천번 表出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뒷받침해 줄 物質的 要素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反撥은 發展에 있어서 아무런 意義를 지니지 못한다”

8) *Ibid.*, pp. 422~429.

9) 마르크스·엔겔스, 「德意志意識形態」, 《마르크스·엔겔스全集》, 第3卷(北京:人民出版社, 1965年), pp. 39~40, 78.

고 말하였다.¹⁰⁾

絶代的으로 必要한 前提로서의 ‘生産力의 至大한 増進과 高度의 發展’에 관하여 마르크스는,

“이러한 發展이 없다면 貧困이 普遍化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極端的인 貧困이 支配하는 社會가 되어 반드시 內需品을 얻기 위한 鬭爭이 展開되기 시작할 것이며, 이에 따라 結局은 과거의 陳腐한 물건들이 되살아 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¹¹⁾ 또한 絶代的으로 必要한 實際的인 前提條件으로서의 ‘共產主義的 意識’에 관해서도 자신의 觀點을 피력하였다. 그에 따르면, 共產主義的 意識이 없으면 사람들은 과거의 ‘生産活動’이 지닌 本質에 대하여 反抗하는 方法과 새로운 ‘生産活動’을 전개시켜 나갈 方法을 모르기 때문에 자연히 사람들은 다시 舊生活方式와 舊交流方式에 따르게 된다고 한다. 또한 이와 같은 舊生活方式의 盛行은 共產主義的 生活方式의 進行을 막는 결정적인 障礙요소가 된다고 단정하였다.

그런데 마르크스의 사상속에서의 ‘共產主義的 意識’은 두가지 측면의 意識을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現實生活의 意識이고 다른 하나는 精神的 意識이다. 現實生活의 意識과 관련하여¹²⁾ 마르크스는, 사람들은 共產主義的 意識을 통하여 과거의 人間關係 내지는 人類의 發展을 알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그는 다른 한편으로, 共產主義的 意識下에서는 私有制가 制約됨으로써 生産力은 個人과 他人을 구별하는 事物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즉, 생산력이 個人과 他人을 구분짓는 事物에 의해 결정된다면 個人은 모든 現實生活을 상실함으로써 결국 추상적인 객체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다. 더우기 그는 個人的인 次元에서 生産의 生命體이자 生産活動의 要諦가 되는 勞動이 自主性을 상실한

10) *Ibid.*, pp. 43~44.

11) *Ibid.*, p. 39.

12) 이에 관한 分析은, 本人의 論文, “中國大陸의 社會主義意識—淺論中共黨領導人的認識與問題”, 「中國大陸研究」, 第29卷 第2期(1986年 8月), p. 13 參照.

다면, 그것은 個人的 生命을 빼앗아 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다.¹³⁾ 따라서 私有制를 소멸시켜야 만이 個人은 普遍的인 聯合의 단계를 거쳐 '공동體'(Gemeinschaft)의인 生活을 이룰 수 있으며, 그렇게 되어야 만이 人間이 지니는 각자의 재능이 수단적인 의미로 발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도 자주적인 활동으로 변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마르크스는, "오직 共同體에서 만이 個人的 自由가 存在한다"¹⁴⁾라고 말하였다. 이는 바로 共產主義의 生産活動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交換關係가 定立되어야 함과 동시에, 모든 共產主義社會의 現實속에서 下部構造(Infrastructure) 내지는 基礎(Base)가 創出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역설한 것이다.

共產主義의 意識의 精神的인 측면과 관련하여 마르크스는, 과거에는 私有制로 인하여 사람들의 生活領域이 상호고립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친 競爭心으로 서로에 대한 기만이 지배적이었다고 하였다.¹⁵⁾ 그래서 사람들은 活動의 自由를 상실하였으며,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따라서 人間이 모든 生産力을 점유하면 진정한 自由를 구가할 수 있는 客體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더 나아가서 정신적으로나 의식적으로 私有制라는 觀念을 지양하고 '所有'(having)에 대한 욕망을 버리면, 그들은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서로 친하고, 사랑하며, 서로를 인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個人들은 상대방으로부터 즐거움과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서로의 고통을 의식하여 함께 禍福을 나누는 人間關係를 만들 수 있게 되어 다시는 舊社會의 醜惡을 밟지 않게 된

13) 마르크스·엔겔스, *op. cit.*, pp. 75~81.

14) *Ibid.*, p. 84. 이 문장은 本人이 수정하여 번역한 것이다. 《全集》에서는 원문에서 나오는 Gemeinschaft를 '集體'로 번역하였으나, 이는 원래의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독일어 원문은, Horst E. Witting ed., *Karl Marx: Bildung und Erziehung* (Paderborn: Ferdinand Schöningh, 1968), p. 112를 보라.

15) 마르크스, 「토마스 뮐의 《政治經濟學原理》概要」; 《마르크스·엔겔스全集》, 第42卷(北京:人民出版社, 1979年), pp. 34~36 參照.

다고 한다.¹⁶⁾ 결국, 마르크스는 새로운 交換方式에 基底를 둔 生産이 定立되어야 함과 동시에 이를 토대로 모든 共產主義社會의 現實속에서 새로운 上部構造(Superstructure) 내지는 意識을 創出해 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社會主義의 建設’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社會主義의 ‘文化革命’은 現存하는 狀況을 소멸시키는 現實의인 運動이어야 하며, 이는 곧 現實의인 與件下에서 上部構造(意識)와 基礎(下部構造: 生活)의 變革을 알맞게 結合시킴으로써 ‘總體化’(Totalization)의 創造를 完成시키는 것을 意味한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運動과 관련하여, “現存하는 世界에 대한 革命化過程을 통하여 實際적으로 事物의 現狀을 거부하고 改變시켜야 한다”고 말하였다.¹⁷⁾

Ⅲ. 새로운 社會主義建設

文化革命은 意識과 一切의 社會關係를 改造하는 것이고, 社會主義의 文化革命은 社會主義의 視角에서 意識과 生活의 變革을 進行시키는 것이라는 데에는 再論의 여지가 없다. 中共이 推進하는 새로운 社會主義建設도 例外가 아니다. 그러나, 中共當局은 새로운 文化革命을 進行시킴에 있어서 初期에는 文化革命의 진정한 意味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방황하였다. 이윽고 中共의 理論界는 中共이 ‘八大’ 以來로 展開해 온 社會主義建設을 反省하는 中共黨 中央의 見解를 반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956年 黨의 ‘八大’ 決議와 관련하여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점은, 社會主義 改造를 위한 基本與件이 마련된 以後에 나타난 國內의 主要矛盾은 勞動者階級과

16) *Ibid.*, p. 37; 마르크스, 「1844年 經濟學哲學手稿」, 《마르크스·엥겔스全集》, 第42卷(北京:人民出版社, 1979年), pp. 121~130.

17) 마르크스·엥겔스, *op. cit.*, p. 48.

資產階級間的 矛盾이 아니라 급속히 증가하는 人民의 經濟的·文化的 欲求와 現實으로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에 기인하는 人民들의 不滿 사이에 존재하는 矛盾이다. 따라서 全國人民들의 主要任務는 모든 力量을 모아 社會生產力을 發展시켜 國家의 工業化를 실현함으로써 나날이 증가하는 人民들의 物質的·文化的 要求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 黨은 全面的인 社會主義化에 필요한 사상적 준비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 우리나라의 社會主義建設은 크나 큰 좌절을 겪어 왔다.”¹⁸⁾

같은 시기에 鄧小平도 이러한 과오를 反省하면서, “무엇이 社會主義이고, 무엇이 마르크스主義인가? 과거 우리는 이러한 問題를 완전히 認識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했다.¹⁹⁾ 作今에 中共當局이 推進하고 있는 새로운 文化革命的 進行過程에도 이러한 問題點이 여전히 內在하고 있다. 즉, 社會主義 建設方式은 아직도 盲目的이라는 것이다.

1. 思想活動과 그 問題點

과거의 社會主義建設이 실패한 것을 거울삼아 中共當局은 새로운 文化革命을 진행시키기 위한 준비작업을 일찍부터 始作하였다. 華國鋒 執權期였던 1976年 10月 중순부터 ‘四人幫’을 비판하는 群衆運動을 불러 일으키는 동시에, 새로운 社會主義建設의 障礙요인이 될 수 있는 文革의 잔재를 철저히 제거하기 始作하였다.²⁰⁾ 이러한 움직임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던 바, 하나는 文革의 잔재와 그것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동시에 과거의 과오를 反省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理論的 研究의 분위기를 造成하는 것이었으며, 나머지 하나는 社會科學의 研究活動을 再建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었다. 中共은 이러한 일련의 改造作業을 통하여 大陸의 理論界를 선도함으로써 서서히 社會主義建設의 方向으로 나아가

18) 中共中央黨校科學社會主義教研室編寫組, *op. cit.*, 第3版.

19) 鄧小平, “建設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 「建設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北京:人民出版社, 1984年), p. 35.

20) 中國社會科學院哲學研究所編, 「中國哲學年鑑」(1982) (上海: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82年), p. 306 參照.

려 했던 것이다.²¹⁾

文革이 지니는 毒素과 그것이 미친 影響을 제거하고 과거의 과오를 反省하는 努力의 主要意圖은 文革期에 자행된 ‘四人幫’의 奪權과 全面的인 專制政治 및 그들이 일으킨, 進歩와 發展을 저해한 각종 罪惡을 비판하는 동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강요에 의하여 生氣가 박탈당한 狀況下에서는 道理가 存在할 수 없다는 事實을 理解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이에 中共當局은 ‘四人幫’에 대하여 정신적 구속을 통한 탄압을 가하는 동시에 모든 일의 집행에 있어서 ‘百家齊放·百家爭鳴’의 방침을 관철시켰을 뿐만 아니라 思想의 自由를 보장하고 禁區를 파기함으로써 과학의 수준을 向上시켰다.²²⁾ 한편, 理論的 研究의 분위기를 배양하려는 노력은, 1978年 3月 하순의, “새롭고 계속적인 學習運動을 展開할 것”이라는 華國鋒의 호소를 기점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²³⁾ 研究活動의 중점은 대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科學을 研究함에 있어서 客觀的인 態度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의 重要性을 강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르크스·레닌主義와 毛澤東思想을 다시 새롭게 학습하기 위해서는 精確한 立場, 觀點 및 方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社會主義의 規律에 대한 客觀的인 認識과 함께 社會主義革命과 建設의 要諦가 되는 重要한 問題에 대한 基礎的인 分析에서부터 科學的 解答을 도출해 나아가야 한다는 事實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社會科學의 研究活動을 再建하려는 努力은 上記한 두가지 方向의 움직임과 함께 進行되었다. 먼저 體制上으로 編制를 개편하고, 中國大陸의 社會科學研究를 관장하기 위해 ‘中國社會科學院’이 設立되었던 바, 이는 ‘中共科學院 哲學社會科學部’가 변

21) 이러한 分析內容은, 本人의 論文, “中共‘致富’政策中的理論工作(上)”, 「中國大陸研究」, 第28卷 第2期(1985年 8月), pp. 48~49 參照.

22) 「人民日報」의 論說, “一定要讓社會科學研究空前繁榮起來”, 「人民日報」, 1978年 3月 11日字, 第3版.

23) 「人民日報」의 論說, “開展一個新的持久的學習運動”, 「人民日報」, 1978年 3月 28日字, 第1版.

모한 것이다.²⁴⁾ 즉, 1977年 여름에 華國鋒의 비준에 의하여 ‘哲學社會科學院’이 ‘中國社會科學院’으로 改稱되어 독립한 것이다.²⁵⁾ 이것은 中國大陸의 一般高等教育 및 社會科學研究를 重建하기 위해 1977年에 當局에 의하여 計劃·設立된 機構이다. 이를 기점으로, 以後 中國大陸에서는 研究 機構들이 거의 정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研究를 위한 일련의 규칙이 制定됨으로써 본격적으로 學術活動이 展開되기 始作하였다.

全體的으로 보건대, 鄧小平執權 以前에 中國大陸에서는 이미 社會主義 建設을 위한 思想準備作業이 進行되고 있었으며 나름대로 큰 成果를 거두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1978年 10月 6日부터는 胡喬木에 의하여 社會主義建設에 있어서 經濟體制에 관한 중요한 理論問題들이 검토되기 시작할 수 있었다.²⁶⁾ 또한 이를 토대로 大陸의 經濟學界에서는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던 분위기를 쇄신하는 동시에 새로운 經濟理論에 대한 활발한 討論活動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²⁷⁾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鄧小平의 執權後에도 大陸의 理論界에서는 社會主義建設을 위한 이렇다 할 상세한 計劃이나 확실한 方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時間的인 限界性 : 文革以後 鄧小平體制的 成立에 이르기까지, 中共의 理論界가 가진 시간적 여유는 단지 2年뿐이었는데, 그 2年동안 研究와 討論을 행하고 그것을 토대로 새로운 社會主義 建設方案을 確立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었다. 더우기 中國大陸은 文革의 폐허에서 모든 것을 새로이 建設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建設過程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창출해내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기 위

24) 周永達, “我所知道的社會科學院”, 「當代」月刊, 第7期(1981年3月), p.40; 張劍明, “中國社會科學院介紹(一)”, 「立報」月刊, 第4期(1981年1月), p.46 參照.

25) 張劍明, *op. cit.*, p.47.

26) 周太和主編, 「當代中國的經濟體制改革」(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4年), pp.162~163 參照.

27) *Ibid.*, pp.163~164.

하여 주어진 時間은 너무나 짧았다.

(2) 文革의 잔재가 뿌리깊게 남아 있었고 그것이 미친 影響力이 至大하였다: 文革의 10 年은 人民들로 하여금 실제와는 相異한 道理나 理論에 집착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의욕상실과 思想의 強化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現在, 사람들의 思考領域을 擴大시키고, 다방면에 걸친 문제점을 숙고하며, 社會主義建設을 위한 精神的인 變革의 必要性을 강조하는 일련의 노력이 進行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努力의 必要性을 直視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추진함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겠다.²⁸⁾

(3) 心理的 장애를 제거하기가 곤란하다: 中共當局이 社會主義 建設方案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文革期에 강조되었던 모든 思想的 制約을 제거하는 동시에 思考領域을 확대시키고, 百家爭鳴期과 같이 ‘꺼리낌없이’ 모든 事情을 토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는 일이다. 百家爭鳴期에 中共當局이 취한 조치는 간단명료하였다. 當時 그들은 思想研究家들의 의혹을 없애기 위하여 特別한 宣傳機構를 통해, 변발을 강요하지 않고, 모자의 착용을 강제하지 않으며, 物理的인 暴力을 行使하지 않는다는 ‘三不主義’를 說明함으로써 百花齊放의 길을 열었던 것이다. 그러나, 文革以後의 與件은 사뭇 달랐다. 文革의 影響力이 뿌리깊게 남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知識分子들이 文革期의 各種 政治運動에 의하여 탄압받아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心理的인 억압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심리적인 장애를 제거하는 일은 과거와는 달리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일이 되었다.²⁹⁾

(4) 政權이 根本的으로 安定되지 못하였다: 오랫동안 中共은 黨內的 빈번한 權力鬭爭과 끊임없는 政治運動 때문에 政權의 安定을 기할 수 없었다.

28) 中共 自身에 대한 批評은, 「人民日報」特約評論員, “思想再解放一點”, 「人民日報」, 1978 年 11 月 9 日字, 第 3 版 參照.

29) 「光明日報」特約評論員, “堅持馬克思主義的科學態度”, 「人民日報」, 1978 年 9 月 19 日字, 第 2 版; 「人民日報」特約評論員, *op. cit.*, 第 3 版 參照.

주지하다시피, 社會主義 建設方案의 修正은 많은 理論家들의 參與와 기여를 필요로 하는 作業이다. 그러나 中共에서는 權力의 基礎가 安定되어 있지 못한 狀況이었을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思想家들조차 政治적으로 各者의 地位가 保障되어 있지 못했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理論家들은 權力者의 시너로서 權力鬭爭에 깊이 介入하여 왔다. 理論家가 理論研究에 獻身할 수 없는 與件下에서는 理論研究가 활발히 전개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제까지 中共의 理論家들은 政策의 變化에 따라 구호를 제창하고, 權力者의 의사를 대변하고, 그들의 이념을 해석하고, 文章과 講演을 통해 그것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일이 ‘立身出世’의 道理로 여겨왔기 때문에, 그만큼 社會主義 建設作業은 등한시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겠다.

中共은 새로운 文化革命의 推進이 思想界에 의하여 주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그간 약간의 참신한 方案이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그 成果가 미진하였다. 이에 鄧小平은 執權後, 한편으로는 社會主義 建設方案을 모색·시험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大原則을 수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理論家들로 하여금 理論定立을 통하여 社會主義建設에 기여토록 하였다. 그러나 아마도 이런 식으로 社會主義建設을 推進한다면 狀況이 복잡해져서 바람직하지 못한 結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먼저, 鄧小平이 社會主義建設을 모색·시험하는 데 있어서, 中國理論界에 대하여 희망하는 事項은 中國大陸이 안정된 社會主義로 진입할 수 있는 方案을 강구해 내는 일이었던 바, 中國의 理論界는 이러한 기회를 십분 이용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게 활동하였다. 그들은 中共이 취하는 각종 政策을 美化하면서 理論적으로 그러한 政策들이 바로 社會主義를 위한 政策이라는 점을 증명해내는 데 진력하였던 것이다. 더우기 中共의 理論界는 ‘四大自由’, ‘白樺事件’, ‘精神汚染除去運動’ 등을 폐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1986年 여름에 이르러서는 ‘學術自由化’의 風潮를 조성하였다.³⁰⁾ 그러

나 中共의 理論界는 새로운 文化革命이 進行過程에서 中共當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었다. 따라서, 결국 中共의 새로운 文化革命은 中共當局의 자체적인 모색하에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中國에 가서는 수습이 불가능한 부정적인 結果를 發生시킬 가능성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2. 實際活動과 갈등

새로운 文化革命에 대한 理論界의 효율적인 支援을 얻을 수 없게 되자 中共當局은 1978年 12月부터 새로운 社會主義建設을 推進하기 始作하였다. 여기에는 하나의 重要的 特徵이 있다. 그것은 바로 中共이 社會主義的인 狀況下에서는 社會主義 建設方案을 모색·시험해야 한다는 것을 直接的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實際적으로 이러한 文化革命은 社會主義的인 內容을 지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社會主義建設의 進行方式을 살펴 보면, 中共當局은 먼저 農業部門에 있어서 生産責任制를 시행하였는데 그 效果는 무척 컸다. 그런데 이러한 ‘致富’를 위한 生産方法은 그것이 과연 社會主義와 부합되는 政策이냐가 판명되기도 전에 鄧小平에 의하여 집행되었던 것이다.³⁰⁾ 鄧小平은,

“나는 經濟的인 측면에 있어서, 一部地域이나 一部企業 및 一部勞動者·農民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많은 수익을 얻게 되면, 자연히 그들의 생활여건도 좋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생활여건이 좋아진 일부 사람들은 곧 生産의 極大化가 가져다 주는 結果를 몸소 보여주는 하나의 표본이 됨으로써 주위의 사람이나 其他地域, 또는 其他單位의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것이다. 결국 이것은 곧 國民經濟를 發展시키는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全國人民들이 모두 富裕해질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³²⁾

30) 學術自由化風潮에 관하여는, 本人의 論文, “雙百方針”上知識份子”, 「問題與研究」, 第15卷 第12號(1986年 9月), pp. 14~30 參照.

31) 試行內容에 관하여는, 本人의 論文, “中共‘致富’政策之制訂·推行與影響”, 「匪情月報」, 第27卷 第11期(1985年 5月), pp. 11~12 參照.

32) 鄧小平, “解放思想, 實事求是, 團結一致向前看”, 「鄧小平文選」(1975~1982)(北京:人民出版社, 1983), p. 142.

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致富’와 ‘富裕’라는 개념은 점차적으로 鄧小平의 理念內에서 하나의 중요한 사회주의 내용으로 정착하였다. 가장 확실한 것은, 1979年 3月の “社會主義를 堅持하자”는 鄧小平의 연설에서, ‘富裕’라는 개념이 ‘公有制’ 및 ‘勞動에 의한 分配’라는 기존의 중요한 社會主義原則들과 함께 새로운 社會主義原則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³³⁾ 그후로 中共에서는 生産力을 發展시키는 方法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提高되었으며 그것이 곧 社會主義라는 認識이 造成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社會主義建設을 위한 經濟活動, 즉 農業, 工業, 商業 및 企業의 發展과 관련된 諸般政策을 통하여 作今에 中共이 進行시키고 있는 文化革命을 살펴볼 수 있다.

農業과 관련하여 中共은 1980年 2월에 ‘全國農村人民公社經營管理會議’를 開催하여 資本主義의 初步的 段階라 할 수 있는 ‘包產到戶制’를 채택하면서, ‘社會主義的 經濟에 의존하고, 社會主義路線에서 이탈하지 않는’ 生産方法을 인정하였다.³⁴⁾ 또한 1981年 12月에는 ‘全國農村工作會議’를 통해서, 中國大陸에서 實行하고 있는 各種 責任制는 모두 ‘社會主義 集團經濟에 입각한 生産責任制’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였다.³⁵⁾ 최종적으로, 1984年 10月 24日에는 黨中央에 의하여, ‘經濟體制改革에 관한 中共中央의 決定’이 통과됨으로써 農業의 生産活動을 위한 政治的인 基本原則이 確立되었다. 이 決定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現在 우리나라의 經濟體制는 社會主義的 公有制와 서로 연관되어 있는데, 이것은 資本主義的 私有制와 연관되어 있는 經濟體制와 다르다. 後者는 社會生産의 發展과 人民生活의 편리함 및 勞動就業의 擴大를 위한 代替作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社會主義的 經濟가 지니는 利點에 의해 補完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것은

33) 鄧小平, “堅持四項基本原則”, 「鄧小平文選」(1975~1982)(北京:人民出版社, 1983年) p. 151 參照.

34) 周太和主編, *op. cit.*, pp. 174~175 參照; 보다 상세한 發展狀況은, 本人의 論文, “中共 ‘致富’ 政策之制訂·推行與影響”, pp. 11~13 參照.

35) “中共中央轉發「全國農村工作會議紀要」”, 「人民日報」, 1982年 4月 6日字, 第 1版 參照.

社會主義的 經濟에 종속된다.”³⁶⁾

工業과 관련하여 中共은 1977 年 4 月에 ‘調整·改革·整頓·提高’라는, 國民經濟에 대한 八字方針을 實行에 옮길 것을 확정함으로써 社會主義建設을 發展시키기 위한 企業의 自主權擴大方案을 시험하기 시작하였다.³⁷⁾ 또한 1981 年 여름과 가을 사이의 기간동안에는 利潤包乾制의 득실을 재 평가하여 工業生産에 대한 經濟責任制를 추진하였다.³⁸⁾ 더우기 同年 10 月과 1982 年 10 月에는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한걸음 더 나아가 經濟責任制를 확정시킴으로써 社會主義建設을 發展시켰다.³⁹⁾ 그후로 1984 年 10 月 20 日の ‘經濟體制改革에 관한 中共中央의 決定’에서는 商品生産과 經營에 대한 經濟責任制가 확정되었다.⁴⁰⁾

商業部門도 이와 유사하다. 1979 年 5 月에 中共은 8 個 企業의 自主權 確大를 進行시키면서, 公的인 商業과 公企業에 대한 全企業利潤制度를 實行에 옮기기 始作하였다.⁴¹⁾ 1981 年의 여름과 가을 사이의 기간동안에는 工業企業에 대한 經濟責任制를 樹立하는 동시에 全般的인 經營責任制를 推進하였다. 또한 중국적으로는 1984 年 10 月 20 日の ‘經濟體制改革에 관한 中共中央의 決定’을 통하여, 商品經濟의 發展과 計劃經濟의 實行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로 合致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즉, 그들은 現在 中國大陸에서 實行되고 있는 經濟制度가 ‘公有制를 基本으로 한 計劃的인 商品經濟’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었다.⁴²⁾

36) “中共中央關於經濟體制改革的決定”, 中國經濟年鑑編輯委員會編, 「中國經濟年鑑」(1985) (北京: 經濟管理出版社, 1985 年), pp. I-1~12.

37) 周太和主編, *op. cit.*, p. 17.

38) 張德成, “關於經濟責任制的幾個原則性問題”, 「人民日報」, 1981 年 12 月 28 日字, 第 5 版. 이 기간의 발전에 대하여는, 本人의 論文, “中共 ‘致富’ 政策之制訂·推行與影響”, pp. 14~15 參照.

39) 周太和主編, *op. cit.*, pp. 187~188.

40) “中共中央關於經濟體制改革的決定”, p. I-4.

41) 周太和主編, *op. cit.*, p. 188.

42) “中共中央關於經濟體制改革的決定”, p. I-5. 이 기간동안의 發展과 變化는, 本人의 論文, “中共 ‘致富’ 政策之制訂·推行與影響”, pp. 15~17 參照.

中共은 作今에 추진되고 있는 文化革命이 결코 實際的으로 社會主義內容을 지닌 文化革命은 아니라고 한다. 왜냐하면, “個個人이 자신의 生活方式를 表現하는 方法을 지니고 있듯이 다른 사람들도 자신들의 表現方式을 지니고 있다. 그런 고로 사람들의 表現方式은 그들의 生産과 一致한다. 즉, 사람들의 表現方式이 生産과 一致하듯이 生産 또한 그것과 一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⁴³⁾ 一定한 生産方式, 또는 一定한 工業化段階는 始終 一定한 共同生活方式 내지는 一定한 社會階級과 연관되어 있다.⁴⁴⁾ 中共이 文化革命을 實行에 옮겼을 때, 그들은 生活的인 측면에서나, 交換方式 및 生産勞動의인 측면에서 社會主義의 關係를 發展시키지 못했다. 비록 制度的으로는 社會主義가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中共은 社會主義的 文化革命을 進行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⁴⁵⁾ 따라서 商品生産을 위주로 한 文化革命의 推進은 社會主義社會와 유사한 社會를 創出해낼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思想的으로나 理論的으로 社會主義社會라고 규정할 수 있는 현실이 造成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中共當局이 재차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社會主義社會에서 이와 같은 文化革命이 推進되면 生産力이 發展되고, 人民들의 物質文明이 提高·好轉되며, 文化水準도 높아져 결국은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改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여기는 점이다.⁴⁶⁾ 中共의 理論界 역시 이러한 文化革命에 호응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와 같은 社會主義建設은 道德의 進步를 촉진시켜 줄 뿐만 아니라 人民들로 하여금 社會主義 價值觀念을 形成시킬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

43) 마르크스·엥겔스, *op. cit.*, p. 24.

44) *Ibid.*, pp. 33~34.

45) 理論에 대한 論證과 解釋은, 本人의 本文, “中國大陸生活商品化的傾向”, 「中國大陸研究」, 第28卷 第6期(1985年 12月), p. 84, “商品經濟與中共的社會主義建設”, 「中國大陸研究」, 第29卷 第7期(1977年 1月), pp. 73~74, “中國大陸的社會主義意識”, pp. 16~17, “商品意識與社會主義的生活”, 「中國大陸研究」, 第29卷 第8期(1987年 2月), pp. 19~20 參照.

46) 鄧小平, “在中央顧問委員會第三次全體會議上的講話”, 「建設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北京:人民出版社, 1984年), p. 58 參照.

해준다고 여기고 있다. 결국, 中共은 社會主義社會에서의 商品生産의 發展은 社會主義 民主制度의 完成과 發展에 유익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간주한다고 말할 수 있다.⁴⁷⁾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사실을 직시하지 못한 하나의 환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IV. 새로운 文化革命의 衝擊

이상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文化革命은 理論적으로 豫見되는 結果만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어선 경우에는 모든 악영향을 극복할 수 없다. 따라서 以下에서는 새로운 文化革命의 推進으로 야기된 社會階層의 分化, 家庭構造와 倫理의 變化 및 社會氣風의 破壞, 道德觀念의 沒落 등을 논해 보고자 한다.

1. 社會階層의 分化

지난 30년동안 中共에서는 當局의 의지에 의하여 階級分化現狀이 거의 제거되어 왔으나, 최근 수년간에는 社會主義建設이 推進됨으로 인하여 새로운 分化現狀이 생겨나고 있다. 農村에서는 家庭이 主體가 되는 生産責任制가 實施됨에 따라 토지의 임대가 이루어지고, 生産道具의 購買 또는 獨立經營을 기반으로 한 個體戶 내지 專業戶가 造成됨으로써 農民들은 基本的인 社會階級으로 形成되기 始作하였다. 都市에서는 多數의 企業體가 經營責任制를 실시하였던 바, 그 결과 부분적으로 國營企業이 株式會社 形成으로 改編되었을 뿐만 아니라 勞動者가 새로운 株主로서 經營에 가담하기 시작함으로써 企業의 所有權은 점차 有限的인 것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심지어 어떤 地方에서는 소규모의 國營企業이 個人이나 勞動者에 의

47) 丘挺, “論社會主義商品經濟對人們思想的積極影響”, 「光明日報」, 1986年 5月 5日字, 第3版; 王銳生, “商品生産和道德進步”, 「哲學研究」, 1986年 第5期 (1986年 5月), p. 32; 忠東, “論商品生産方式”, 「學習與探索」, 1986年 第3期 (1986年 5月), p. 66 參照.

하여 運營됨으로써 점차적으로 個人과 商業·企業間的 긴밀한 關係가 造成·維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商人階級の 出現이 현저해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變化는 이미 資本主義的 小生産者階級이 대두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⁴⁸⁾

個人的 地位向上이 과거의 복종과 순응에 의해 지배되던 個人的 位相과 人間關係를 競爭과 變動 및 分化 등과 같은 다양한 가치가 지배하는 關係로 변화시키는 것과 같이, 이번의 文化革命은 生産力의 發展을 추구하고 富의 축적을 강조함으로써 본래의 평준화되어 있던 社會를 文化變革을 통해 分化되는 社會로 變質시키고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각자 '私利'를 위해 鬭爭·對立하며, 社會 역시 全般的으로 조화라는 표면적인 허울 속에서 적나라한 긴장관계가 팽배하는 社會로 變貌되고 있다.

2. 家庭構造와 倫理의 變化

文化革命이 進行되어 감에 따라 中國大陸에서는 한쌍의 夫婦와 未婚子女로 구성된 核家庭 및 최소한 두쌍 이상의 夫婦로 구성되어 있으나 每代마다 한쌍의 夫婦만 있는 主幹家庭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家族關係의 變化에서 몇가지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婦人의 地位가 높아짐으로써 夫婦 各者의 基本權利가 동등한 수준이 되며 妻子의 收入은 家庭經濟의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가 된다. 둘째, 傳統的으로 혈연적 家정을 중시하던 家庭關係가 夫婦位主의 家族關係로 轉換되는 동시에, 더 이상 妻子는 '從夫, 從子'하지 않게 되어 相對的으로 아내의 權利가 높아진다. 세째, 함께 살던 家庭이 分解됨으로써 多數의 家庭이 母家庭과 子家庭으로 나누어지게 된다.⁴⁹⁾

文化革命이 야기시킨 이러한 家庭構造의 變化는 家庭倫理的인 측면에서

48) 林燕文, "中共의 經濟改革與大陸社會變遷", 「中國大陸」, 第20卷 第1期(1987年1月), p. 30.

49) "小家庭取代大家庭", 「文匯報」(香港), 1986年9月20日字, 第7版; "家庭趨小型, 幾代同堂少", 「明報」(香港), 1985年12月9日字, 第13版.

몇가지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첫째, 婦人の 經濟活動은 家庭에서 차지하는 婦人の 經濟的 役割과 地位를 提高시켜주는 관계로 점차 전통가정의 가부장적 속박이 없어져 많은 婦人들이 家事를 돌보는 데 소홀해지는 한편, 男子들은 새로운 형태의 家庭環境에 적응하지 못하여 ‘돈버는 일’을 등한시함으로써, 결국 이혼이 증가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⁵⁰⁾ 둘째, 家庭構造의 단순화는 구속을 파기시킴으로써 農村의 剩餘勞動力을 농촌밖으로 끌어내어 生産業과 商業에 종사토록 하였던 바, 이렇게 구성된 계층은 과거의 관습을 거부하고 새로운 것에 관심을 집중시키며, ‘現代式 婚姻’을 추구함으로써 너무나도 쉽게 家庭을 파괴시키고 있다. 심지어는 婚姻과 離婚을 金錢의으로 해결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도 생겨나고 있다.⁵¹⁾ 세째, 文化革命은 個別家庭으로 하여금 勞動을 통한 부의 축적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모든 家庭은 生産 및 經營確大 내지는 부의 축적에만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子女教育이나 子女들의 學業, 道德, 品行 등에는 관심을 집중시키지 못하고 있다.⁵²⁾ 따라서 점차 家族愛나 孝道 및 근검절약과 같은 관념은 사라져 가고 물질만능주의만이 숭상받는 社會로 전락하게 되었다.

3. 社會氣風의 破壞

中共의 새로운 文化革命이 社會에 미친 最大의 부정적 영향은 바로 社會에 만연하고 있는 낭비풍조와 화려한 걸치레를 중시하는 시각의 확산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 와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몇년동안 中共幹部들의 意識속에서는 근검절약을 훌륭한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 낭비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고가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점

50) “河南林縣婚姻案件劇增”, 「明報」(香港), 1987年 3月 3日字, 第23版 參照.

51) “改革開放有利於婚姻家庭關係健康發展”, 「人民日報」, 1986年 8月 21日字, 第4版 參照.

52) “父母口袋開始脹卜卜”, 「大公報」(香港), 1986年 11月 8日字, 第14版; “個體戶子女輟學多”, 「文匯報」(香港), 1986年 12月 6日字, 第16版.

점 사치풍조가 만연되고 있다. 예를 들면, 많은 黨幹部들이 고급차를 선호하게 되었는데, 中共當局이 밝힌 바와 같이, 中共의 各部處가 1985년에 구입한 차는 모두 11만대로서 구입비용으로 약 60여억원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또한 어떤 지방에서는 療養院과 招待所의 수리비용으로 막대한 자금을 사용하였는데 그 비용규모는 기준을 훨씬 초과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늘어나고 있는 걸치레, 호화스러움, 낭비 등의 풍조는 社會建設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⁵³⁾

이러한 社會氣風의 破壞相은 民間部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입의 상승에 따라 사치정도가 날로 심해지고 있으며, ‘인사치레’ 또한 갈수록 성행하고 있다. 「湖南 華容縣 農村에서의 ‘인사치레’ 行爲에 관한 調查報告」는 다음과 같이 폭로하고 있다.

“調査에 응한 37.7%의 농민들이 1985년 한해동안 ‘인사치레’로 예물을 보낸 횟수는 가구당 평균 26차례였으며 액수는 가구당 397원이었다.”⁵⁴⁾

이러한 ‘인사치레’가 社會에 미치는 영향은 무척 심각하다. 왜냐하면, ‘인사치레’의 성행은 人間과 人間 사이의 정상적인 친분관계가 金錢的인 교류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金錢이 人情의 代名詞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富를 쌓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人間の 地位도 빈부에 따라 규정되는 등 社會의으로 극히 해로운 풍조가 造成되고 있다고 하겠다.⁵⁵⁾

4. 道德觀念의 沒落

社會氣風의 破壞와 관련된 것으로서, 새로운 文化革命의 推進은 道德觀念上的 變化를 몰고 왔다. 가장 問題가 되는 것은 中共人民들의 職業的 道德性이 보편적으로 沒落해 가고 있으며, “道德은 部分이고, 金錢은 모

53) 魯牛, “重談勤儉”, 「明報」(香港), 1987年 2月 23日字, 第5版.

54) Ibid.

55) 吳仁, “人情成災”, 「明報」(香港), 1987年 4月 25日字, 第9版.

든 것이다”, “땀을 많이 흘리면 利益이 많고, 게으름을 피우면 利益이 적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利益이 하나도 없다”라는 勞動觀念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싼 것을 비싸게 팔고, 抵級한 物件을 高級이라 하며, 가짜를 진짜라고 속이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매점매석, 투기, 가짜약품장사 등과 같은 경제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⁵⁶⁾ 앞에서 언급한 금전만능주의의 팽배에 따른 사치풍조의 만연과, 거기에 편승한 性的 欲求의 범람으로 大陸에서는 賣淫도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 있다. 결국, 성적 문란은 기존의 정조관념을 붕괴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家庭倫理를 파괴시키는 바, 現在 大陸에서는 이상과 같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⁵⁷⁾

V. 맺음말 : 問題와 評價

文化革命이 가져다 준 社會的 衝擊은 中共 스스로도 社會主義建設을 進行할 당초부터 豫見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1980年代 初半부터 文化革命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中共當局은 이미 共產主義 道德에 대한 강조와, 經濟法과 범죄에 대한 징계조치 등을 통해 社會의 부정한 풍토를 제거하고,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작업을 착수하였다. 그러나 中共의 努力은 文化革命의 執行과 관련된 根本的인 問題에 대한 재검토를 根幹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용은 계속되었다. 즉, 舊風을 一掃하지 않은 狀況下에서 新風을 맞이한 格이 되었던 것이었다. 中共當局의 表面的인 努力이 사태개선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中國大陸의 社會는 中共當局이 힘들여 推進하고 있는 文化革命의

56) 林燕文, *op. cit.*, p. 32, 陳璋津, “中國大陸生活商品化的傾向”, p. 85.

57) “大陸城市賣淫問題嚴重”, 「星島日報」, 1985年 11月 29日字, 第2版; “鄧力群談娼妓”, 「星島日報」, 1985年 10月 1日字, 第2版; 王緒, “性解放與離婚”, 「明報」(香港), 1985年 9月 25日字, 第5版.

결과를 實際적으로 상세하게 表出시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文化革命은 社會構造를 變貌시켰을 뿐만 아니라, 人間關係가 緊張으로 점철되도록 만들었으며, 결국에는 사회적 위기와 모순의 심화를 야기시키는 根本原因이 되었다. 中共은 더이상 이러한 현상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問題의 根源을 냉철히 分析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문제 자체를 명확하게 파악하여야만 한다. 원래 文化革命을 어떻게 進行시키려 하였는가, 소홀히 취급되었던 部門은 어느 곳이었는가, 방향이 어긋난 部分은 어디였나 등과 같은 모든 問題들이 신중히 재검토 되어져야 한다. 당초 이러한 問題들은 文化革命 進行初期부터 신중히 고려되어졌어야 할 問題들이었다. 이러한 問題點에 대한 분석과 치유는 철저하게 사태를 개선하는 根本方法이 되는 것으로서, 머리가 아프다 하여 머리를 치료하고 발이 아프다 하여 발을 치료하는 임시방편의 치유책, 예를 들면 黨의 知識分子에 대한 탄압, 政治體制의 強化 등과 같은 미봉책이 아닌 것이다.

中共이 推進하고 있는 文化革命을 豫測해 보건대, 만약 中共當局이 철저하게 모든 問題點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社會에 던지는 衝擊은 계속 확대될 것이고, 그럼으로 인하여 中國大陸內部에서는 더욱 심각한 위기가 造成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中共이 進行시키고 있는 作今の 文化革命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될 수 없으며, 그것으로써는 中共이 궁극적인 目標로 삼고 있는 改革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다.